보 도 자 료

담당자	변혜원 선임연구위원(02-3775-9027)	보도	2026. 5. 26.(화) 15:00부터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역(02-3775-9115)	매수	총 4매

보험연구원, 「소비자 금융역량 진단과 정책과제」 세미나 개최

- “금융당국, 유관기관, 금융권 등은 국민들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해 협업 강화 및 생애주기 맞춤 금융교육 등을 지속 추진”
- “중고령소비자의 금융후생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지식 제고와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 지원을 병행할 필요”

○ 보험연구원은 **소비자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**하기 위해 **5월 26일(화) 오후 2시 『소비자 금융역량 진단과 정책과제』** 세미나를 개최함

- 프로그램 -

시 간	내 용
14:00 ~ 14:10	(환영사) 김헌수(보험연구원 원장)
14:10 ~ 15:00	(주제발표1)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허수정(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기획팀장)
	(주제발표2)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 진단과 강화방안 변혜원(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15:00 ~ 15:10	Break Time
15:10 ~ 15:50	(패널토론) 좌 장: 김민정(충북대학교 교수) 토 론: 배진수(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) 이정민(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) 정수민(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) ※ 가나다순

○ (주제발표 1) 허수정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기획팀장은 ‘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’라는 주제로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금융교육과 향후 금융교육 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함

• **(금융이해력 조사 결과)** 2024년 우리나라 성인의 **금융이해력**은 **65.7점**으로 2022년 조사(66.5점)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, OECD 평균(2023년, 62.7점)보다는 높은 수준임

  -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우리나라 성인들은 **높은 금융지식(73.6점)**에 비해 평상시 재무상황이나 소득·지출관리, 장기적인 재무목표 설정 여부 등 **금융행위 점수(64.7점)가 낮아 지식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**임

• **(금융역량 강화)** 금융역량은 금융이해력이 **실제 의사결정**으로 이어지는 **행동**이며 금융이해력이 높아도 **구체적 행동**이 따르지 않으면 금융역량이 높다고 할 수 없음

  - **급변하는 사회·경제환경에 대응**하고 **금융웰빙**을 위해서는 **국민 모두**가 **금융역량**을 갖추는 것이 **중요**함

  - **금융교육** 역시 ‘배운 내용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’에 초점을 두고 **금융역량을 강화하는 방향**으로 **추진**되어야 할 것임

• **(생애주기별 금융교육)** 금융감독원은 연령대별 **금융 특성** 및 **재무목표**가 **상이**한 점을 감안하여, 각각의 **생애주기**에 **집중적**으로 **요구**되는 **금융역량**에 대해 **중점 교육**을 추진하고 있음

<표 1> 금융감독원의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방안

구분	금융 특성	재무목표
아동·청소년기	• 용돈 관리 등 금융에 대한 기초적 가치관 형성 중	• 건전한 금융습관 확립, 금융 리터러시 조기 향상
청년층	• 결혼, 거주지 마련 등 중요 의사결정에 최초 직면	• 신용관리, 경제적 자립 지원, 취업사기 등 범죄예방
중장년층	•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	• 노후 대비 자산형성을 위한 소득지출 등 관리능력 제고
고령층	• 금융사기 고도화, 금융의 디지털 가속화 등 대응에 어려움	• 금융사고 등 대응능력 강화 및 디지털 금융소외 방지

- 아울러, 보편적 교육에 더해 개개인의 **구체적 재무의사 결정**을 돕고, **체험**을 통해 터득하는 **손에 잡히는 교육프로그램** 확충, **디지털 금융 리터러시 강화** 등 금융교육의 **질적 향상**을 위해서도 **다각적**으로 **노력**하고 있음

• **(향후 추진 방향)** 「2025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」를 통해 의결 발표된 **「2026년 금융교육 추진 방향」**에 따라

- **변화하는 금융환경**과 아동·청소년-청년-중·장년-고령층에 이르기까지 **생애주기**에 맞는 **필요한 교육을 적시**에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, 금융유관기관 및 금융권이 협업하여 **지속 추진**해 나가고 있음

- 주요 추진 사업은 '금융과 경제생활' 과목의 안착, 교사연수 확대 등 **학교 내 금융교육 적극 지원**, **청년 대상 재무상담 실시**, **중·장년층**의 **연금·자산 관리 교육**, **고령층 금융사기 예방**, **생활밀착형 디지털 금융교육** 실시 등임

○ **(주제발표 2) 변혜원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'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 진단과 강화방안'이라는 제목으로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 실태와 개선과제를 논의함**

• 「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 진단과 강화방안」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**미래 위험 대비, 공적 금융자문 활용, 대면·비대면 금융지원 채널, 금융역량에 대한 과신 완화, 긍정적 금융행동 유도**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함

- 동 보고서는 전국 55~79세 중고령자 3,000명의 금융지식·행동·후생 수준을 조사,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

• **(공적 금융자문 활용)** 건강악화 및 죽음에 대한 계획수립을 돕고, 부채 및 현금흐름 관리, 완충자산 마련을 위한 재무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**공적 재무진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**해야 함

-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악화나 장례비용, 상속·증여 등에 대해 44% 이상의 응답자가 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

- 은퇴가구의 32.5%가 생활비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고, 부채 보유 응답자(전체 응답자 중 49.2%) 중 61%가 빚이 너무 많다고 느끼고 있었음

• **(금융역량 취약집단)** 금융역량 취약집단*에 대해서는 **대면 재무진단 채널 강화 및 비대면 채널 서비스 사용 편의성 개선, 금융계획이나 금융자문 필요에 대한 인식 제고**가 필요함

-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미숙, 자신의 금융역량에 대한 과신 등이 금융역량 취약집단의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 및 금융후생 개선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남

* 금융역량 취약집단: 보고서에서는 금융지식,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 수준에 따른 3분위 집단 중 금융지식과 금융행동 지표 수준이 모두 가장 낮은 집단을 금융역량 취약집단으로 정의함

• **(행태편향 경감)**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 대신 **감정, 심리, 인지적 요인으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향(행태편향; Behavioral Bias)을 경감**시키는 방안들도 검토해야 함

- 금융지식이 있더라도 소비자의 행태편향이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을 방해할 수 있으며,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저소득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

<표 2> 중고령자 금융역량 강화방안

구분	현황	강화방안
미래 위험 대비	• 갑작스러운 건강악화, 죽음에 대한 계획 부족	• 인식 제고 및 지원 서비스: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와 죽음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돕는 공공 서비스 및 정보 제공 확대
공적 금융자문 활용	• 은퇴가구의 32.5%는 생활비 부족을, 부채 보유자의 61%가 과도한 부채 부담 경험 • 금융역량 취약집단은 전문 금융자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음	• 부채관리, 현금흐름 관리, 완충자산 마련을 위한 재무관리 지원 • 공적 서비스 접근성 혁신; 신뢰할 수 있는 무료 공적 금융자문 서비스 홍보 강화 및 접근성 제고
대면·비대면 금융지원 채널	• 금융역량 취약계층의 디지털금융 활용 수준이 낮아 구조적 배제 위험이 존재	• 하이브리드 지원: 비대면 재무진단의 사용 편의성 개선(실수 방지 설계 등)과 함께, 대면 상담 채널(신용·부채 컨설팅 등)의 적극적 유지·활성화
금융역량 과신 완화	• 금융역량 취약집단은 비취약집단 대비 자신의 금융지식 수준을 과신하는 경향이 큼	• 객관적 자기진단 도입: 재무진단 전 짧은 퀴즈를 통해 실제 금융지식 수준을 인지시키고 전문 조언의 필요성을 환기
행동변화 유도	• 금융지식만으로는 금융후생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, 실제 금융행동의 변화가 핵심임	• 행태편향 경감 조치: 대출 시, 총 상환비용 시각화 등 소비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경감시키는 넛지(Nudge)를 활용

첨부: 발표자료 각 1부. 끝.

•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http://www.kiri.or.kr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